

특집/소아당뇨를 진단한다

소아당뇨병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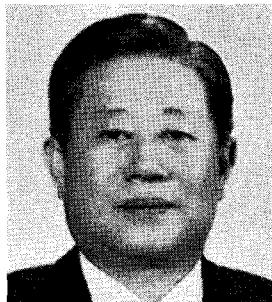
소아당뇨병은 난치병(難治病)이라고 생각되고 소아만성질환의 하나로써 여러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질병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 잘 조절만 한다면 일생동안 아무런 지장없이 생활할 수 있고 공부하고 운동하며 **사회생활**을 정상인과 같이 할 수 있다는 매우 밝은 일면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 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아당뇨병의 치료의 궁극적 목적은 이 밝은 면으로 이끌어 주는데 있다.

소아당뇨병의 특성

소아당뇨병의 특성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그 중요한 요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그 발생기전이 성인 당뇨병과는 달리, 당뇨병을 유발하기 쉬운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유전적소인이 중요한 발생기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 체장에 대한 자가면역항체를 가지고 있어 면역기전이 깊게 관여하고 있고, 불거리 같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체장



고광욱

〈서울의대·소아과〉

소아당뇨는 난치병인 소아만성질환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지만 잘 조절만 한다면 일생동안 아무런 지장없이 정상인과 동일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밝은 일면도 있다.

에 염증성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이 세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혀장이 파괴되고, 분비되는 인슈린 생산이 억제되어, 인슈린 부족으로 소아당뇨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소아당뇨병의 발생율을 보면, 성인에 비해 그 빈도는 낮으나,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점이 있다.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로서 소아 10만명당 매년 새로운 환자가 약 30명(발생율) 발생한다고 하며, 미국이 약 15명, 일본이 1명, 한국과 중국본토가 약 0.8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행하게도 한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적게, 소아당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발생빈도의 세계추세로 미루어보아 점차적으로 증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음 · 다식 · 다뇨현상 나타나

셋째로 임상증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매우 식욕이 왕성한데도 불구하고 몸이 말라가서 체중의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물을 많이 마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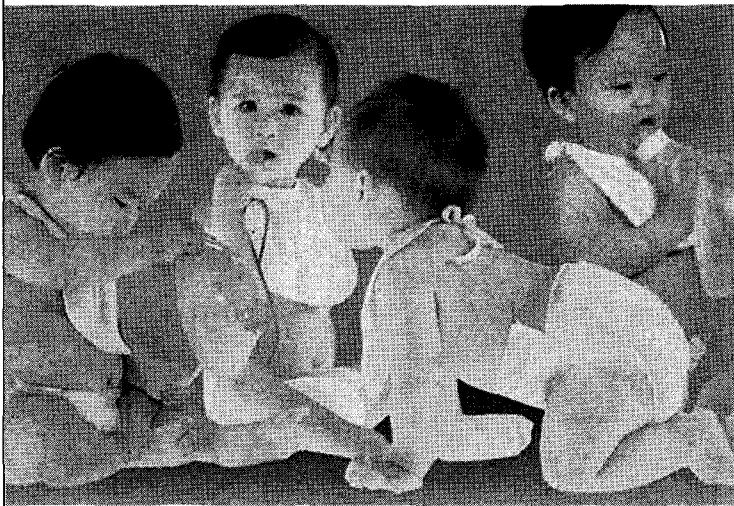


소아당뇨는 여러가지 면에서 성인당뇨와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간호사·사회사업가·부모 등이 함께 집단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소변을 많이 보는, **다뇨증**을 수반하게 된다. 이럴때 감염 같은 질병에 걸리면,『케톤성 산혈증』이라 하여 호흡이 깊고 빨라지며 입에서는 아세톤 냄새가 나오고, 눈이 깊숙하게 들어가 피부가 건조하면서 탈수증에 빠지기 쉽다. 이런 상태가 치료없이 방치된다면, 의식을 잃으면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어 병원의 응급실을 찾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소아당뇨병의 특성이기도 하며, 아주 중독한 상태로서 응급치료를 곧바로 시행하여야 한다.

소변을 잘 가리던 소아가 오줌을 싸게된다 할 때는 한번은 당뇨병을 의심해보아야 하며, 이것은 당뇨때문에뇨량이 증가하여 밤에 소변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인과 달리 식사요법 어려워

넷째로 소아당뇨병의 치료에 있어서, 성인과는 아주 달리 일생 인슈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체장이 파괴되어 인슈린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슈린을 공급해주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주사를 꼭 맞아야만 한다.

인슈린에는 바로 효과를 나타내는『속효성 인슈린』과 24시간에 걸쳐 서서히 효과를 가져오는『중간형 인슈린』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인슈린을 적절하게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주사를 놓게 되는 것이다.

소아에 있어 식사요법은 매우 힘든 과정이다. 물론 이론

상으로 어른들과 같이 식사요법을 할 수만 있다면, 당뇨병 조절이 더 쉬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아는 성인과 달리, 성장 발육을 계속 하여야 하므로 식사요법이 쉽지 않다. 아주 어린아이는 당뇨병을 이해할 수 없고, 엄마가 이것을 장기간 지속할려니, 괴롭고 피곤하여 실재로 시행하기가 아주 힘들다. 어린이가 자라서 당뇨병이 무엇인지 알 만한 나이가 되면, 이때는 반향하는 즉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청소년기라 또한 여의치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운동은 일정한 운동량을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시행할 때 인슈린 요구량을 감소 시킬수 있어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

약물 · 식사 · 운동요법 적정히 유지해야

다섯번째로는 소아당뇨병의 합병증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하며 당뇨병에 걸린후 약 15년이상 경과하면, 약 80%의 환자에서 당뇨병성 망막증이 병발하게 되어 시력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말초신경 염증을 초래 한다든지 콩팥에 병변을 일으켜 신부전증을 가져오기도 한다. 때문에 이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슈린, 식사, 운동의 세 가지 기본적 치료법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소아당뇨병의 이상적 관리는 혈당과 뇌당을 잘 조절하여 혈당치를 100~150mg% 정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정상적인 발육·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또, 지적, 정서적, 심리적인 정상적 성숙을 도모하여 당뇨병이 아닌 다른 소아와 같이 학교, 사회생활에 손색없이 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고, 만성적인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양호교사, 부모, 담임선생님들이 함께 집단지도를 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④